

국내 배터리 기업 수장들, 신성장 동력 확보 총력

권영수 LG엔솔 부회장 유럽 출장
'스마트팩토리' 집중 점검 계획
최윤호 삼성 SDI 대표이사 사장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 강조

국내 배터리 기업 수장들이 글로벌 탑티어(Top Tier·일류) 기업을 목표로, 기술력 강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권영수 부회장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가속화를 위해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에 나섰다. 삼성 SDI 최윤호 사장은 1일 삼성 SDI의 52번째 창립기념일을 맞아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와 '수익성 우위의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권영수 LG엔솔 부회장 유럽 출장

LG에너지솔루션 CEO 권영수 부회장은 폴란드 생산 공장의 스마트팩토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협력사와 기술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일 3박5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권 부회장의 유럽 방문은 지난해 취임 후 처음이다.

권 부회장은 출장 기간 동안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및 스마트팩토리 관련 주요 협력사인 지멘스 등을 찾을 예정이다.

출장 기간 방문하는 폴란드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연 70GWh)으로 유럽 전기차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 거점이다. 최근 생산 능력 확대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권 부회장은 3박5일 간의 짧은 출장 기간 동안 주요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스마트팩토리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 수장들이 글로벌 탑 티어 기업을 목표로, 기술력 강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권영수 부회장, 삼성 SDI 최윤호 사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1월 독일 지멘스와 배터리 제조 기술의 디지털화,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이달 1일자로 전사적인 스마트팩토리 운영과 북미 공장 안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을 발표했다.

우선 북미 지역 생산 안정화를 위해 자동차전지사업부 산하 북미생산총괄 조직을 신설한다. 북미생산총괄은 최석원 폴란드법인장(전무이) 맡는다. 또한 산하에 생산지원담당 조직을 신설해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더불어 가동률·품질·수율 조기 안정화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권 부회장은 "글로벌 생산 현장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전 세계 법인이 표준화된 생산 프로세스로 하나의 공장처럼 운영되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QCD(품질·비용·납기)를 제공해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수익성 우위의 질적 성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호 삼성 SDI 사장의 경영 방침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은 1일 52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글로벌 탑티어(Top Tier)가 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경쟁력', '최고의 품질', '수익성 우위의 질적 성장' 등 세 가지 경영방침

이 더욱 중요해졌고, 보다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최 사장은 기흥사업장에서 진행된 창립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위기를 설명하며, 세 가지 경영방침 중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특히 강조했다.

차별화된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품질 확보와 질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사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성능 극대화 기술,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신규 소재 개발 기술 등을 언급하며, "대외 네트워크와 기술 협력을 강화해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이어 최 사장은 글로벌 탑 티어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핵심요소로 '최고의 품질'을 꼽았다. 최 사장은 "품질 리스크는 회사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사업을 존폐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만큼 임직원들의 의식 개선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하나의 운영 플랫폼 품으로 표준화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최고의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또한 최 사장은 스틸란티스와의 미국 조인트 벤처 계약, 고성장이 예상되는 대용량 원형 및 전고체 배터리 등을 언급하며 "조기 양산을 통해 차세대 제품 시장을 선점해 수익성 우위의 질적 성장을 이뤄 나가자"고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최 사장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과 상생,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존폐 경영 실천을 강조하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 인재 확보와 육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남이현 대표, 홍유석 서울대 공과대학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 서울대와 '친환경 연구소' 2027년까지 총 30억원 연구비 지원

한화솔루션이 국내 주요 대학과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소재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해당 분야 인재 확보를 위해 산학 협력에 나선다.

한화솔루션은 1일 서울대 제2공학관에서 케미칼 부문 남이현 대표, 서울대 홍유석 공과대학장과 이종찬 화학생물공학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솔루션-서울대 친환경 연구소'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연구소는 국내 화학 공정 분야의 대표 연구자인 서울대 김도희, 이종진 교수를 비롯한 6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된다. 한화솔루션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3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촉매 기술과 차세대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등 총 6개 분야 탄소중립 기술의 상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은 이미 서울대와 고부가 석유화학소재 상업화를 위해 2017년에 '신기술 연구소'를 설립하고 총 10건의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특허 출원, 논문 발표, 산학장학생 선발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 밖에 2016년 카이스트(KAIST)와 '미래기술 연구소', 2019년 연세대와 '혁신기술 연구소'를 잇따라 설립해 국내 대학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남이현 대표는 "대학의 최첨단 연구 지식과 기업의 기술 상용화 노하우를 결합한 다양한 친환경 솔루션을 개발해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LS전선, 케이블용 목재 드럼 재활용 사업 추진

LS전선이 케이블용 목재 드럼을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자원 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한 ESG경영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목재 드럼은 케이블의 보관과 운반 과정에서 사용되는데,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LS전선은 중고 목재 드럼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온 드럼'(ON DRUM)을 구축하고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기업이나 기관이 케이블을 사용한 후 빈 드럼에 대한 정보를 올리면 수거 업체가 수선하고 재포장해 생산업체에 다시 공급한다. 온드럼은 LS전선의 손자회사이자 목재 드럼 전문 생산업체인 지앤피우드(G&P Wood)가 운영한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수령원자력이 시범 참여한다. LS전선과 한수원은 1일 경기도 안양시 LS전선 본사에서 'ESG경영 공동실현 및 자원순환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수원 건설현장의 목재 드럼 수거 및 재활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GS칼텍스, 331개 협력사 대상 '공급망 ESG' 관리 강화

4개월간 ESG 항목별 점검 전문가 자문단 컨설팅 지원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사와 자회사,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한 공급망 ESG 관리를 강화한다.

GS칼텍스는 2019년 허세홍 사장 취임 이후 비전선언문을 '우리는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가장 존경받는 에너지·화학기업이 되겠습니다'로 구체화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GS칼텍스 대표 허세홍 사장. 사진제공 | GS칼텍스

분야의 리스크 관리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꾸준히 관리해 왔다.

GS칼텍스는 331개 핵심 협력사를 대상으로 4개월간 공급망 ESG 평가를 확대 실시한다. 2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발표함에 따른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협력사는 각 항목의

'정책·실행·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전반을 점검할 수 있다. 평가 문항은 국내외 ESG 트렌드를 반영한 인권 및 노동, 안전 보건, 환경, 윤리 및 경영시스템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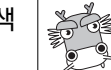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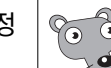
GS칼텍스는 2018년 협력사 행동규범을 수립하고 공급망 ESG 평가를 시범 실시한 이래로 2020년 107개사, 2021년 316개사에서 올해에는 331개사로 확대했다. 이번 협력사 ESG 수준 평가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생산과 직접된 자회사와 해외법인들의 ESG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공급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공급망 ESG 평가는 전문가인 한국생산성본부(KPC)와 함께 진행하며, 참여 협력사는 ESG 항목별 리스크 요인과 개선사항에 대한 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GS칼텍스는 진단 결과를 통해 선정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해당 기업을 방문해 ESG 경영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공급망 체계적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사와 함께는 ESG 경영 실천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라며 "GS칼텍스는 앞으로도 협력사에 ESG 정보와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하며 협력사와 함께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상생경영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6일(수) 음력: 6월 8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웅달샘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계망 등을 삼가라. 그러나 지적인 일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밝은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다. 스스로 찾아서 움직여야 이루어진다.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어딘가에 허술한 면이 있으니 찾아서 보강하길 바라며, 도움을 청할 일이 있거나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여성에게 부탁해 보라.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리라. 원숭이띠와의 거래에서 신중해야 한다.	소가 등을 빌릴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통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시들었던 화초가 비를 만나는 격이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았다. 매때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때는 이루어진다. 망신살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강인한 정신력으로 물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의외의 황제수를 가져온다.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몇몇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욕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라.	갑언이설에 조심만 한다면 일을 벌이고 뜻을 펼치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친구들과 어울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기회를 얻어 공업을 이루는 운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행통할 운세이다. 그러나 매사 항상 준비하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화하게 생활하여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하지만 실속은 있는 날이다.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계망동하지 말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구직자는 곧 취업이 되겠으니 노력하라. 새로운 환경에 들뜨기 쉬운 날이다.	지출을 억제해야겠다. 낭비벽이 생김으로써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까 두렵다. 또한 사치는 금물이니 질투를 없애야 하고 주변을 살펴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후일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자신만 보이는 날이다. 신중하라.						

오늘의 날씨				6일(수)			
서울	60/60	인천	30/60	춘천	60/60		
	25 32		24 30		24 31		
강릉	30/30	대전	30/60	전주	30/20		
	24 29		25 34		25 34		
광주	30/60	대구	30/60	부산	20/20		
	25 34		25 33		24 30		
창원	20/20	제주	20/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4 31		26 33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60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